

# “동물 생명권 인식없이 구제역 극복 못한다”

##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종교인·전문가 한자리서 긴급 토론회 열고 한 목소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은 150만 마리 이상의 가축들이 살처분 되는 등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구제역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생명권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우리신학연구소가 함께하고 있는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는 1월 17일 '반생명적 축산정책의 종식을 기원하는 범종교인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대표,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서울대 수의과 우희종 교수(사진 가운데)는 육식의 대안을 찾지 못하면 식량 고갈의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

### 공장식 축산이 구제역 원인 살처분 의존 정부대책도 미숙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대표는 주제 발표 '적게 먹고 적게 기르고 적게 죽이자'에서 "이번 구제역은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량만 무려 35.4kg(쇠고기 7.5kg, 돼지고기 19.1kg, 닭고기 9kg)에 달한다는 통계를 인용해, 이런 대규모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장식 축산이 필수적으로 도입되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2008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5.8kg인 반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무려 35.4kg(쇠고기 7.5kg, 돼지고기 19.1kg, 닭고기 9kg)에 달한다는 통계를 인용해, 이런 대규모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장식 축산이 필수적으로 도입되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가축은 동물 나름의 자구책이 박탈된 채 인위적으로 사육되고, 개체 식별과 육질개선을 위해 귀가 절단당하고 거세당한다. 비좁은 주거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은 떨어 쉽게 병에 걸린다.

홍하일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가축수는 3~4배 증가하고,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연결돼 신속한 방역체계가 더욱 중요하다. 구제역이 상존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육류 소비 조절을 제시했다. 도시

소비자들이 생협이나 직거래, 농민장터 등을 통해 가까운 지역의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공장형 축산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홍하일 대표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는 지구 환경을 살리고,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대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육류 문화 대안 시급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동물 생명권에서 본 축산 상황과 우리사회'에 대해 발표했다. 우 교수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 동물복지 제외된 축산 인간 생명까지 위협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종교문화운동 필요

우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에서는 동물을 상품으로만 보고 공장식 밀집 사육이 이뤄진다. 생산성과 효율을 추구하는 산업구조는 수많은 동물 바이러스들이 인류에게 들어오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희종 교수는 육류 문화에 대한 대안 문화를 제시하지 못하면 식량 고갈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간의 육식을 위해 수많은 동물이 계속 희생되

면 동물 생명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희종 교수는 정부의 미숙한 방역도 이번 구제역 확산의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대규모 살처분과 생매장이 동물의 생명권 차원에서 적절한 방역대책이었던지 검토되어야 한다. 구제역 발생에서 초기 살처분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권고 사항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백신 접종 없이 실시하는 대규모 살처분은 초기 발생 상황에서는 유효해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현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더구나 정부는 돼지고기 수

책,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운동·종교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환경위기 채식이 대안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 '부메랑이 된 음식-바람직한 식생활과 육식'에서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산업화된 축산은 유전자 조작 육수와 콩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송아지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이를 섭취한 사람의 뇌혈관이나 심혈관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육식이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채식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현재 산업축산에서 한우는 생후 30개월이 채 못 되는 때 고기용으로 도살된다. 3살도 안 됐다는 사실보다는 이 시기의 살코기가 부드럽다는 사실만이 도축의 기준이다. 박 소장은 "살코기는 연해졌고 우유는 넘치지만 이렇게 길러진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로우지 않으니"라고 말했다.

박병상 소장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이 채식위주의 식단이었다며 채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구제역 확산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채식 식단이 육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예전에 없던 질병도 발생하고 있다.

박 소장은 "전통음식들은 조리방법도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 바닷적하다. 자연스러운 밥상이 건강을 지키며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채식이다"라고 설명했다.

## 살처분 당한 생명 명복 기원

### 5대 종교인 한 자리에 모여 살처분 가축 애도 의식 마련

이 날 토론회에 앞서 천도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는 살처분 당한 동물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교의식을 가졌다. 의식은 각 종교별 의례에 따라 진행됐다.

어는 기도에는 불교와 천도교가 참여했다. 천도교에서는 위회속 천도교 청년회중앙본부 사무국장이 정수봉 전을 올린 뒤 발성신고, 성주문 병송을 가졌다. 불교에서는 선업 스님과 선문 스님이 참석해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애도의 기도에 나선 개신교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하나님, 동물의 아프고, 죽을 권리를 빼앗은 탐욕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의 이기심이 공존과 평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했다.

서원의 기도에서 원불교 강해윤 교무는 "살처분 당한 모든 생명의 명복을 바란다. 가축 영가의 수급의 업장이 소멸됐을 것이다. 영가들이여 선업을 쌓기 바란다"고 애도했다. 천주교에서는 김영미 한국여자수도회장 상연합회 사회분과장이 나섰다. 김영미 수녀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소수의 가치를 저버렸다. 구제역은 세상 창조물의 관리자인 인간의 역할을 망각한 결과다. 용서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선업 스님(사진 왼쪽)과 선문 스님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 국내 육류 소비량 기하급수적 증가

### 한 해 평균 70만 마리 소 도축, 닭은 6억 마리, 돼지는 천만 마리

공장식 축산으로 가축들이 질병에 노출된 상황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1월 13일 오후까지 3695농가의 150만 623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후 매몰됐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빠른 전파력과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구제역을 15종의 A급 질병 중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육류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소는 국내에서 연평균 250~270만 마리가 사육되고, 돼지는 900~950만, 닭은 1~1억 30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의 2007년 도축 현황에 따르면 매년 소는 60~70만 마리, 돼지는 1300만 마리, 닭은 6~6억5000만 마리가 도축되고 있

다. 돼지와 닭은 사육보다 도축되는 수가 많아 최소한 태어나 1년도 되지 않아 신속히 도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류 소비 중 어패류와 수입 축산물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해양수산통계연보에 나타난 '국내 어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2000~2006년까지 매년 250~300만 톤 규모의 어류가 포획되고 있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수입 검역통계 순기 보고'에는 2007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쇠고기는 20만3128톤, 돼지고기는 24만8319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이외에도 오리 토끼 사슴 개 등 여러 동물들이 '보신 문화' 속에서 대량 사육되거나 희생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육식 규모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수입물량, 어류까지 감안하면 한국민의 육류 소비는 매우 높다. 육류 소비 문제는 전 세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한불교진흥원

# 대원불교문화대학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모집

### 대학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야간) -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 / 수·금요일 / 한 학기 4과목 수강)
  - 불교심리학,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검사 및 평가, 불교상담학, 성격심리학, 집단상담 I, 아비담마와 상담, 이상심리학, 선심리와 상담, 예술치료, 위빠사나수행과 상담, 상담면접 기술 등.
- 명상학과 (주간·야간) -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 / 수·목요일 / 한 학기 4과목 수강)
  - 불교명상학, 알아차림과 자아, 명상과 몸,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 연구, 현대명상의 이해와 실제, 불교수행과 실습, 종교명상의 이해, 선의 이해와 실제, 뇌 불교수행 그리고 인식, 비교명상의 이해, 명상과 심리치료
- 개강일시 : 2011년 3월 9일(수) 주간 : 오후2시, 야간 : 오후7시
- 강의시간 [각 90분 강의]
  - 주간반 : 1교시 - 14:00 ~ 15:30, 2교시 - 15:40 ~ 17:10
  - 야간반 : 1교시 - 19:00 ~ 21:30, 2교시 - 20:40 ~ 22:10
- 수업료 : 1학기당 300,000원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특 전
  - 장학혜택 : 성적우수상,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50%, 가족 30%

### 대학원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야간) -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 / 한 학기 4과목 수강)
  - 유식학과 상담, 심신통합 이론과 실제,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부부 및 가족상담, 불교경전속의 상담사례, 집단상담 II, MBSR수용전념치료, 개인상담 실습 및 지도, 상담사례연구 및 지도, 선심리 상담실습, 상담과 표현예술 치료
- 개강일시 : 2011년 3월 9일(수) 오후 7시
- 강의시간 : [각 90분 강의]
  - 매주 수·목요일 (야간)
  - 1교시 19:00 ~ 21:30, 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1학기당 400,000원
- 입학자격
  - 1) 본 대학 및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과정을 이수한 자.
  - 2) 정규 대학과정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 상담관련학을 전공을 하거나 졸업예정자.
- 특 전
  - 장학혜택 : 성적우수상,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50%, 가족 30%

### 교수진

(가나다순)

- 강차연 : 강치연심리치료소장 / 한국외국어대 강사 / 서울여대 대학원 아동학과 졸업 문학박사
- 김법진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 / 나우교청 대표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명상학 박사
- 서광삼 : 미국 자아초월심리학회(ITP) 박사 / 미국 보스턴대 종교심리학 석사 /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 서혜희 : 한양사이버대 겸임교수 / 고려대학교 심리학박사
- 윤희조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 교수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 박사
- 이정영 : 표현예술치료 한국 발달 연구소 소장 / 스위스 EGS변형학 박사과정 수료
- 정준영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 스리랑카 켈리아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 주혜영 :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초빙 객임교수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자아초월심리학 박사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02-707-1072)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BBS)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양식은 www.kbpf.org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심사 후 개별통보)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8일 까지
- ※ 자세한 사항은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